

친환경유기농업운동의 현황과 생산자조직의 과제

김영규

(충남발전연구원 6차산업화센터 광천 토굴새우젓 향토산업육성사업단 사무국장/
前 (사)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1. 친환경농업운동의 현황

○ 한국사회의 근대화, 산업화과정에서의 증산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자각(1970년대 중반)으로부터 출발, 농업인 주도, 소비자운동과의 결합을 통한 성장,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의 도입(90년대), 법 제도 정비, 2000년대에 접어들며 급속성장(정책적 육성, 지방자치와 결합한 확산)

○ 생산현황과 시장규모

- 2010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과 인증물량이 전체농림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 농가수 비중은 15.6%, 면적 비중은 11.3%, 인증량 비중은 12.9% 차지
-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10년 3조 7천억원 수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으로 추정. 2020년에는 6.6조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

	2000년	2010년	비고
농가수	2,448호	183,918호	75배 증가
인증면적	2,039ha	194,006ha	93배 증가
인증량	35,406톤	2,215,521톤	63배 증가

○ 조직

-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94~) : 생산·소비·기술·인증 등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30여개의 조직을 망라. 대 정부 정책활동, 제도개선사업 교육 및 연대사업 등을 수행. 생협 전국대표조직(생협법인 전국연합회) 결성 지역단위 조직인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구성 등에 따라 사업 및 조직 재편의 필요성 대두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 전남북, 충남북, 경북 강원 경기 인천 제주 등 9 개 광역조직 포괄하여 2011년 4월 창립. 농업 일반의 과제에 대응하는 운동적 과제와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유통 소비에 대응하는 사업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해야하는 조직적 위상을 갖고 탄생.

2. 현장의 문제인식과 문제제기

○ 보편적인 성공모델이 존재하는가?

- 현재 성공모델로 거론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함.
- 한살림, 생협 등 안정적 계약생산과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책임소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홍성 풀무, 아산 푸른들, 팔당생명살림 등의 사례 / 충남 홍성 흥동농협 강화도 친환경농민회와 농협의 위탁판매방식 등은 특수사례

○ 마을단위, 생협 직거래, 소규모 농업경영체 단위 사업은 유효한가?

- 농업인들은 농협과 행정의 배임 속에 스스로 작목반, 영농조합, 농업회사 등의 농업경영체를 설립하여 생산과 함께 식품가공, 유통에 나서왔고 많은 어려움과 한계 노정
- 학교급식을 비롯하여 유통을 위해서는 다양한 품목을 갖춰야 하지만 대개의 농업경영체는 특정 품목 또는 몇 가지 품목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뿐이며 영세성 빈약한 자본 마케팅 능력 부족, 전문인력 결핍 등으로 인해 시장이 요구하는 다양성과 대응력을 갖출 수 없었음. 급식의 경우도 최소한 수십 가지의 품목을 제공할 수 있어야 입찰 및 (수의)계약의 안정성이 확보되며,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품목을 납품할 수 있어야 때로는 특정 품목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마진을 믹스하면서 유지할 수 있음.
- 지역별, 시기별로 주생산물이 다르기 때문에도 시군 또는 광역적인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한 농업인간 협력이 필요. 시군을 넘어 광역적인 협력체계와 경영주체를 세우는 것이 필요. 지역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농업 설계 및 운영의 한계, 개별 경영체의 배타적인 사업 경쟁 및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 통합적인 발전전략 없는 지방자치의 문제와 사업난발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 개별 농업경영체는 정책생산, 기술개발 및 연구, 교육 등에 있어서도 한계 분명

* 시장가격을 누가 결정하는가?

- 농업인의 조직화와 규모화 정도와 비교했을 때 시장과 유통자본의 규모화 집중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행, 2000년대로 접어들며 유통자본에 생산이 종속, 편재되는 현상 두드러짐.
- 농업인들이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결정권이나 교섭력은 현저히 떨어짐. 적정가격을 보전하는 일은 물론이고 전국을 상대로 하는 유통업자들은 여러 산지가격을 비교해가며 가격을 하락시킴.
- 유통 대책 없는 지방자치체간의 생산지원 정책 경쟁과 소비증가세를 능가하는 생산증가의 결과로 2000년대 중반이후 전통 있고 규모화된 친환경농업 산지의 가격주도권이 유통자본쪽으로 이동.

3. 친환경 생산자 조직의 과제

① 조직적 과제

- 품목별 조직화 보다는 지역적 조직화
- 시군 및 광역적 생산 및 유통 조직화
- 광역적 네트워크를 통한 전국 조직화

② 이념적 과제

- 환경보전형 농업, 지속가능한 생산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선도하며 사회적 합의 도출
- 소비유통에 대응한 농업의 주도성, (보조와 지원에 따른 의존성과 객체화에 대응한 자생력 구축

③ 사업적 과제

-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유통에 대한 광역적 생산 조직화
- 유통에 대한 대책을 동반한 생산확대
- 기초 및 광역, 전국단위 행정과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비효율, 낭비, 중복 사업에 대한 배제와 조정)
- 의무자조금 도입